**튜더 자체 생산 시설 알아보기**

**르 로클에 새롭게 설립된 튜더 자체 생산 시설에 대해 살펴보기**

TUDOR(튜더) 자체 생산 시설은 100여 년간 이어져 온 브랜드 역사 속에서 오로지 튜더 시계만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시설이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는 제품 내 일부 모델을 포함한 모든 튜더 시계는 스위스 르 로클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 튜더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립 후 완전한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최고의 생산 관리 기술 및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갖췄으며 워치메이커들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이 새로운 첨단 시설은 3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완공되었다. 튜더의 브랜드 컬러인 레드로 외부를 장식한 이 생산 시설은 총 5,500 제곱 미터에 달하는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튜더 무브먼트 생산 시설인 케니시(Kenissi) 생산 시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니시와 튜더 소유 계열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튜더는 고성능 메케니컬 칼리버의 개발과 생산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튜더는 이제 핵심 부품의 제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탁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역사**

현재 튜더 생산 시설은 북서쪽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맞댄 뇌샤텔주의 쥐라 산맥에서 멋진 자연 풍경을 선사하는 도시, 르 로클에 자리잡고 있다. 르 로클의 인구는 만여 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이곳은 인접한 도시인 라쇼드퐁과 함께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전에는 중대한 농업 지대였던 이 지역은 일찍이 17세기부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된 도시는 길과 평행하게 주거용 주택과 워크숍을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건되어, 성장기에 있던 워치메이킹 업계에 기여했다.

튜더 생산 시설은 기존에 제네바에 위치해 있던 Montres 튜더 SA의 조립 공정을 쥐라 산맥에 자리한 계열사 및 공급업체와 가까이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에 착공되었다. 그룹은 르 로클 내 1970년에 문을 연 롤렉스 생산 시설 인근의 개발되지 않은 산업 용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곳은 튜더 생산 시설을 위한 완벽한 위치였다. 튜더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로 꾸며진 이 시설은 2021년에 완공되었으며, 2023년 3월 스위스를 대표하는 워치메이킹 박람회, 워치스 앤 원더스(Watches and Wodners)를 맞이하여 공식 개관했다.

**튜더 자체 생산 시설 자세히 알아보기**

자체 생산 시설에서는 150명의 구성원이 가장 신뢰도 높고 견고한 시계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하고 있다. 튜더가 추구하는 핵심 원칙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시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은 자동 생산 기술과 숙련된 워치메이커들의 노하우를 고유의 조합으로 결합했으며, 최첨단 기술과 건물 내에 구축된 물류 시스템, 자동화된 테스트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탁월한 시계를 제공한다.

**케니시 - 튜더의 무브먼트 생산 중심지**

튜더의 시계 대부분에는 튜더 무브먼트 생산 시설인 케니시에서 개발 및 조립 과정을 거친 자체 제작 칼리버가 탑재된다. 튜더 자체 생산 시설과 케니시 건물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연구 및 개발부터 최종 조립까지,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케니시는 2010년, 튜더의 자체적인 수요와 더불어 고성능 메케니컬 무브먼트를 위한 산업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전문가가 브랜드에 집결하여 2015년 바젤월드(Baselworld)에서 첫 번째 칼리버를 선보였다. 튜더 외에도 케니시의 초기 고객으로는 브라이틀링(Breitling)이 있었으며,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2018년에는 샤넬(Chanel)과 산업 동맹을 체결했다. 현재 케니시는 노르케인(Norqain), 포티스(Fortis), 태그호이어(TAG Heuer), 벨 & 로스(Bell & Ross), 울트라마린(Ultramarine)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를 고객으로 삼고 있다.

케니시 생산 라인은 최첨단 기술과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튜더의 노력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가장 먼저 메인 플레이트는 RFID-태그가 내장된 적절한 직경의 인서트 위에 장착되어 있다. 인서트는 셔틀 디바이스 위에 놓여 첫 번째 작업대의 조립 라인에 진입한다. RFID-태그는 장차 칼리버가 될 부품이 올바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칼리버의 이동 경로 전체를 추적할 수 있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품의 품질, 생산성, 조립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립 데이터 전체를 수집할 수 있다. 조립 라인의 첫 번째 전체 자동화 테스트 사이클을 통과한 모든 무브먼트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Official Swiss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COSC)로 전달되며, 다음으로는 튜더로 이동하여 시계에 장착된다.

**조립**

워치메이커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기술적 장점은 워크숍 전체에 지속적인 양압 환경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지하에 자리잡은 튜더 생산 시설의 HVAC 시스템은 먼지가 시계 또는 기계에 유입될 확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지속적인 공기 흐름을 일으켜 먼지가 계속해서 워크샵 주위를 부유하는 것을 방지한다.

최종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튜더는 조립된 시계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 생산된 모든 시계는 곧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는 모든 시계의 이력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워크숍이 유연하고 민첩하며 실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워치메이커들은 크로스 트레이닝을 통해 모든 조립 공정을 마스터해야 한다. 튜더는 4명의 워치메이커로 구성된 자율적인 팀이 제작 과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를 달성한다. 기계부터 서랍 내의 내용물과 구성까지, 모든 작업대는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구성된다. 이는 동질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과정 및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팀원은 항상 하나의 세포처럼 함께 움직이며,업무에 완전히 착수하기 전 팀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 팀워크를 쌓고 효율성을 향상한다.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팀원은 튜더 컬렉션 내의 모든 레퍼런스를 조립할 수 있다. 하나의 팀에서는 시간 순으로 다이얼 장착, 시계 바늘 장착, 케이스 장착의 3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테스트**

모든 튜더 시계는 튜더 자체 생산 시설에서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모든 모델은 튜더 성능 관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조립이 완료되어 자체 제작 칼리버를 탑재한 경우 오차 범위가 하루 -2/+4초, 다른 칼리버가 장착된 경우 오차 범위가 -4/+6초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시계는 고압력 물탱크에서 방수 기능을 테스트한다. 튜더의 일부 모델은 훨씬 까다로운 METAS 기준을 충족한다. 튜더는 모든 시계의 METAS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목표로 한다.

METAS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은 정확성, 자기장에 대한 저항성, 방수, 파워 리저브 등 시계의 주요 기능적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증이다. 이는 정확성부터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립된 시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오차 범위가 5초(0/+5초) 이내여야 하며, 이는 COSC 인증 기준(-4/+6초)보다 5초, 튜더 자체 제작 무브먼트의 기준(-2/+4초)보다는 1초 더 엄격한 기준이다. 또한 이 인증은 15,000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어도 시간의 정확성을 보장하며,방수 성능과 파워 리저브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이 인증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반되는데,스위스 제작 기준에 따라 스위스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무브먼트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

*본투데어(Born To Dare)*는 튜더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문구이다. 이는 브랜드의 역사와 오늘 날의 의미를 모두 반영한다.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육지, 빙하, 하늘, 그리고 심해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손목 시계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튜더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혁신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또한 오늘날 워치메이킹을 있게 한 튜더의 선구적인 접근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튜더가 이룬 혁신들은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 주걸륜(Jay Chou), 올 블랙스(All Blacks) 등 삶에 대한 대담한 도전을 통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고의 홍보대사들이 이처럼 훌륭한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튜더 소개**

튜더는 세련된 스타일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다. 튜더 브랜드의 역사는 롤렉스의 설립자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가 ‘The Tudor’라는 상표를 등록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46년, 그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롤렉스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고자 Montres TUDOR SA를 설립했다. 그 결과, 튜더 시계는 역사적으로 대담한 모험을 했던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오늘날 튜더 컬렉션에는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Pelagos), 글래머(Glamour), 1926 등의 플래그십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튜더는 2015년부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해왔다.